

일원론적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2)

Oneness Design Methodology (2)

이순종, 김종근

서울대학교

Lee Soon-Jong, Kim Jong-K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y words: Oneness, Oriental philosophy, New design paradigm, Design process

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자인 의미의 변화

과거 20세기의 산업사회는 요소와 분리에 바탕 한 '분석적 사고', 기계적 표준화에 바탕 한 '보편적 가치', 자본주의에 바탕 한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었으며, 이러한 물질중시의 산업사회는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은 물론 전세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정보와 지식사회로 명칭 되는 미래사회에 대해 이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초 물질과 균형적,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를 중시하고', '환경과의 공생과 조화를 위하여 환경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동일시하여 생각하는 진일적 사고'가 보다 중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는 빠른 속도로 유기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전환의 맥락 속에서, 21세기의 디자인은 과거 20세기의 전통 산업사회와 달리, 인간, 사회, 환경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창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방향과 질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최근의 디자인가치는 과거 산업시대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벗어나는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분석적 부분적 디자인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디자인 개념이 강조되고', '과거의 단순한 가치에서 보다 다양한 가치가 내재하고', '과거의 경쟁과 차별중심의 가치관에서 서로 다른 가치간에 공존과 조화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지식.문화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서구적 관점에 바탕을 둔 분석적, 물질중심적 디자인 사고 및 방법을 초월하여 동양적 사고, 특히 일원론에 바탕을 둔 디자인 가치의 재해석과 함께, 전체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동양철학과 일원론의 개념

동양은 직관적 정신으로 인간의 주체적 자유를 획득하는데 주력했고, 서양은 물질로서 현실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과학문명을 발달시키는데 힘을 쏟으로써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말을 낳았다. 이제 동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합된 사고로—동도와 서기가 각각 따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일체가 되어—닥쳐올 미래를 현명하게 맞이해야 할 때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음양과 종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물질보다는 비가시적.정신적인 질서와 조화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불.도교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일원적 사고방식은 분리적 요소와 환원적 관점보다는 전일적 관점을 중시하였고, 변증법적 발전보다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으로의 변화를 중시하고, 경쟁과 차별화의 가치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중시 함으로서 미래의 사회가치의 흐름과 상통하고 있다. 서구정신에 있어 위대한 전기를 마련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는 데카르트의 고전물리학의 기계주의적 우주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우주를 살아있는 하나의 전일적이며 통일적 유기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일원론적인 동양적 우주관에 접근시키고 있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고의 재발견과 디자인에의 적용은 디자인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해결 함으로서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디자인이 밝아온 여러 병폐를 막고 범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Culture>		<Beauty>	
Oriental	Western	Oriental	Western
naturalism	human centered	live	mechanical
oneness	dualism	weak.flexible	hard.rigid
religious	scientific	deep.calm	surface
emotional	rational	simple	complex
mental	material	frank	artificial efficienc
meaning	practical	curve	strait
subjectism	objectism	oneness with nature	break from nature
speciality	generality	harmony	dualism
nstinct,experienc	analysis	totalism	individualism

<표.1> 동서양의 사고방식과 미의 차이점

3. 일원론적 디자인원리와 과정의 제안

(1) 통일

통일로서의 일원론은 여러 부분을 큰 하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항상 종합성이나 전체성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일원론은 주체와 객체, 유와 무, 물질과 비물질, 동과 서, 과거와 현대 등 각각의 요소와 사물을 대립을 통한 변증법적 성질로 파악하기 보다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큰 하나로 보는 것이다.

(2) 조화

인간과 인간, 물과 물. 인공물과 자연환경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입장에서, 각각의 존재가치 가운데, 상호유익하고 밝고 평화롭게 서로가 협동하고 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원론에서의 존재가치는 자기 자체 안에 자연히 조화성을 가지게 된다. 일원론적 조화의 아름다움은 전체속에서 요소들이 역동적인 균형의 과정을 통하여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꼭 알맞은 어울림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즉 알맞음이란 물질과 정신, 유와 무, 과거와 현대, 지역과 국제 등이 균형을 갖는 것이다.

(3) 변화

모든 존재는 높은 단계를 향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전진(前進)함을 지향한다. 변화의 관점에서 일원론은 전진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운동하고 변하는 성질이 있고, 이는 내재하는 원인으로 스스로 약동한다. 자연변화의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법칙과 같이 모든 사물과 존재는 성 하는 새 것과 쇠하는 낡은 것이 서로 교체되며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는 변화의 작용을 따른다. 궁극적으로 일원론에서의 변화나 새로움은 자연에서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에 채워 상생상극(相生相克)하는 모습에서처럼, 전체 안에서 서로 주고 받으며 전체가 발전적으로 약동하는 것이다.

4. 일원론적 디자인 프로세스와 단계별 주요 할 일

일원론적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는 프로세스로 이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객을 불이의 큰 하나로 바라보며(unification), 그 안에서 애정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결함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서로 채워 가는 나눔의 정신이며(change), 그래서 전체가 균형 있게 알맞음으로 귀결되어 상호 유익함 속에 공존하며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1) 통일적 사고의 단계(Observation Stage)

일원론의 통일적 사고는 디자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그 안에 내재한다.

- a. 합적 사유: 전체에 바탕 하여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큰 하나로 바라보는 것, 분석적인 사유(事由)보다는 종합적인 사유(事由)
- b. 체의 중시: 전체적인 집단을 중시, 집단의 이익 우선.
- c. 주객의 합일: 비이원적인 전체성 속에 융합
- d. 모임과 소통: 조각, 단위를 포함시키는 모임 중시, 상호 정서(情緒)적인 소통(疏通)을 도모.
- e. 내재적 질서: 통일 속의 요소 상호관계의 질서

(2) 조화적 존재의 단계(Evaluation stage)

일원론의 조화의 개념은 사물이 주변과 균형있고 안정되게 존재하는 원리로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조화는 자연스런 순리정신에 입각하여 사물들을 상호간에 어울리게 하는 정신이다. 이는 사물을 개별보다는 일체와 포괄로 파악하는 사고에서 가능해진다.

- a. 균형과 통합: 음과 양의 조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상태.
- b. 상호의 공존: 대화, 교감, 상호 유익함. 사물 존재가치 규명.
- c. 순리와 조화: 큰 하나 속에서의 어울림.
- d. 애정과 대화: 통일과 조화의 이상적 유지를 위한 '정(情)'.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 서로간의 교감 등 상호관계의 밀착성.
- e. 상호 존중: 또한 정은 개인보다 타인과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의 일원으로 조화 모색, 상호존중, 결정, 공존.

(3) 변화의 창조 단계(Creation stage)

변화의 디자인 태도는 무위에 바탕을 두고 절제하며, 이타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며, 허와 비움을 통하여 유연한 수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창조의 원리에 해당한다.

- a. 이타와 나눔: 자연은 남을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전체 속에서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메우기 위해 요소, 사물, 행위, 의식 등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돕는 것.
- b. 절제와 개선: 물의 창조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개선. 물적 요소와 에너지의 최소화, 유용성의 극대화, 절제.
- c. 생략과 추상: 불필요한 요소의 절제, 생략과 추상화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 유연하고 역동적 변화, 생명가치지속.
- d. 숙지와 직관: 전체를 바라보는 직관, 상황에 따른 적용원리를 설정.

즉, 일원론적 변화와 창조는 정해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 관념적, 추상적, 직관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원리를 설정하여, 물 흐르듯이 상황과 용도에 적합한 기능, 기술, 재료, 구조, 비례, 형태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상상력과 구성력의 탁월함은 바로 생활과 사물의 유용성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철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숙지성에서 발현된다.

5. 결론

21세기의 디자인 가치는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지나친 시장경쟁관

계와 물질중심적 사고를 초월하고 지구생태계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간가치의 창조의 노력은 물론 인간간, 인간 환경간의 참다운 소통과 통합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 개념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원론의 디자인원리는 1)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 하에 사물간에 주체와 객체를 동일인 시 하며(통일의 사고), 2) 균형과 안정 속에 알맞음의 아름다움으로 사물들을 존재케 하며(조화의 사고), 3)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 전체 속에서 부족하고 결함 있는 것을 채워 가는 나눔의 자세(변화의 사고) 등 3가지의 기본 원리로 구성된다.

첫째, 일원적 디자인의 통일적 사고는 큰 하나라는 전체의 가치 속에서 이와 기, 무와 유 등 세부 요소적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과거 산업사회시대에 디자인에서 보여왔던 요소와 개인의 가치보다는 전체와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고, 분석과 분리에 의해 사물을 해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종합과 합일적 자세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일원적 디자인의 조화의 사고는 전체나 통일 속에 내재해 있는 요소들간에 어울리는 관계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즉 조화의 디자인은 요소들 간에 어울림으로, 예를 들어 이와 기, 음과 양, 불현과 조화, 자유와 규율, 美와醜, 자연과 문명, 형이상과 형이하, 道와 器의 상보성과 中庸, 그리고 역동적 균형을 의미한다. 조화적 디자인사고의 특징은 과거 산업사회의 경쟁과 차별적 가치를 초월하여, 협동과 조화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성과 일방보다는 애정과 대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대비와 개체보다는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요소들의 가치간에 알맞음의 상태를 강조한다. 그러나 정체나 고착된 조화가 아니라 -端에 치우침이 없는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뜻한다.

셋째, 일원론적 디자인의 변화의 사고는 바로 엔트로피의 감소-즉 규율과 절제와 축약과 정보의 효율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창조를 본질로 삼는다. 일원론적 창조의 변화와 창조의 과거 산업사회의 폐기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절제와 순환적 개선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기적 욕망보다는 이타적 나눔이 강조된다. 또한 창조의 사고과정은 과거 산업사회의 귀납과 이성에 바탕하기 보다는 연역과 직관을 중시하고, 정해진 문제해결의 원리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보다 중시한다.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삶의 아름다움이며, 나아가 일원적 디자인의 목표는 바로 생명성과 아름다움과 선의 추구이다. 일원적 디자인의 핵심은 道와 器, 또는 이와 기의 가치가 큰 하나의 디자인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곧 큰 하나의 태극(太極)적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디자인은, 일원론적 입장에서 그릇(器)의 형태 디자인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그릇을 인식하는 사고의 디자인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 가치에의 관심과 함께 보다 절제된 내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는 상상력의 자유와 함께 절제와 축약의 규율적인 측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F.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83.
- 최영진. 동양과 서양. 지식산업사. 2000.9
-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외.